성명서

군산미군기지사용에 관한 협정(MOA) 개정에 대한 시민모임의 입장

군산시민들은 지난 3월부터 군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개정에 있어 미군측의 인상요구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이유는 1)미군측의 착륙비라 명칭되는 사용료는 무상임대된 땅에 대한 이윤행위이며 2)지난 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협정에 미공군규정(AFI 10-1001)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 파기하게 되어 천파운드당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과 이로인한 3배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함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다.3)우리한국국민은 매해 $4억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주둔군지원경비란 명목으로 미군측에 지불해왔으며 이 비용의 상당부분은 기지시설 유지보수비로 지출되기에 민항관련 지출비용과 주둔군지원경비는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하에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전국 1억여평의 땅을 미군에게 무상으로 무기한 임대해주었다.이 한국땅에 대해 한국국민이 거꾸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이의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과 청원운동 그리고 20주간 이어지는 금요시위 총 4차례의 시민집회 등을 통해 우리군산시민은 민족자존심을 세우기위해 노력해 왔다.

가장 중점 사항인 착륙비의 문제는 기존의 1천파운드당 $0.6에서 협정만료일 2003년까지는 $1.7까지 점진인상에 합의하기로 한 국방부-미군간의 합의안을 접하고, 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미군측의 부당한 300%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요구에 대해 완전한 인상철회는 아니었지만 점진적인 인상합의결과는 군산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에 의한 성과임을 밝힌다.분단상황과 안보를 이유로 침묵이 강요되는 한미간의 불평등 구조속에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대응함은 한미관계의 불평등구조의 개선을 위한 일보전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1)한국땅을 무료로 쓰는 미군들이 한국국민에게 사용료를 받는 부당함과 2)주둔군지원경비등에서 중복지출되는 점 그리고 착륙료와 유지보수비의 법적근거 및 산출내역공개 3)한국내 영토에서 미국내 규정(AIP10-1101)을 강요하는 미군측의 폐단과 오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후 이에 대한 시민과 한국정부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뒷면 계속)

시민모임은 이번 인상안을 계기로 군산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요구하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1)군산시가 미군쓰레기처리와 용수비용을 인상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0일 시민모임은 군산시장 면담을 통해 위의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예로 쓰레기 수거-매립-침출수관리(30년)와 인건비를 계산하여 미군측에 적정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거에 포함되는 비용(공무원인건비제외)만을 받고 있다. 이는 평생을 한국국민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과 차이없이 받는다 함은 미군에 대한 사대적인 특혜가 아닐 수없다. 우리는 다시한번 군산시가 미군측에 대한 적정액을 산출하여 징수할 것을 촉구한다.

2)지역주민의 소음피해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
지난 50여년간을 90db-130db라는 극심한 소음속에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에게 정부와 미군측의 더 이상의 외면은 죄악임을 밝힌다.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서 말없이 고통을 견뎌내는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피해실태조사를 통한 치료와 보상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그리고 군산시의 공동소음피해실태 조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모임은 인상안 철회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과정과 결과에 있어 단합된 군산시민의 의지를 모았다는 점과 부당함으로 점철된 한미관계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시민저항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군기지라는 큰 벽에 억눌려 지금까지 민족자존심이나, 국민주권의 문제, 더욱이 주민복지의 문제를 외면해온 지난시기에 대해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군산미군기지에 대한 감시 및 개선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1998년 3월 5일 군산미군기지 정문앞에서

미군기지민항사용료인상안철회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문정현신부, 오충일 목사, 문재곤스님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사랑청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군산인권위원회
군산YMCA 군산YWCA 군산청년회의소 군산환경운동시민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 민중사랑실천연합 불교신도연합 새시대노동자회
새정치국민회의군산을지구당 푸른군산생활협동조합 (사)자연보호협의회군산시지부
전교조군산지회 전북여성운동연합 전북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교우회 청학야학교 평화정보센타(총22개 단체)